

내년 예산 257조...7.9% 늘어

연구개발 예산 첫 10조원 넘어 노령연금·교육부문 대폭 증액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7.9% 늘어나는 257조3천억원으로 짜여졌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예산은 1조원 증액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지않게 배정됐다.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올해 50만명에서 내년에는 62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생 1만8천명에게 모두 80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에는 1조6천억원이 투입되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데 2천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정하고 2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7조3천억원으로, 올해의 238조4천억원보다 7.9% 늘어난다. 이중 예산은 10.4% 증가하는 182조8천억원, 기금은 2.3% 늘어나는 74조5천억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5.8%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총지출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3천억원에 머물 전망이며 외환시장안정용 국제 발행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2조원이 많은 10조원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내년말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적은 313조원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처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0%, 경상성장률은 7.3%로 예

상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분야별 총지출은 ▲사회복지·보건 67조5천억원(10.0% 증가) ▲교육 35조7천억원(13.6%) ▲국방 일반회계 26조7천억원(9.0%) ▲수송·교통·지역개발 18조9천억원(2.4%) ▲농림·해양·수산 16조5천억원(3.4%) ▲산업·중소기업 12조6천억원(0.1%) ▲환경 4조4천억원(10.0%) ▲통일·외교 2조6천억원(7.3%) ▲연구개발(R&D) 10조9천억원(11.2%)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해 3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6천억원으로 1조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예산으로는 올해의 2배인 1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광주 1조5,715억...전남 5조525억

광주 신규사업 24건 658억 전남도는 12건에 2,441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업비는 각각 108건 1조5천715억원과 314건 5조525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국고 반영액은 지난해에 비해 10.9% 1천543억원과 4.4% 2천128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국고 예산 5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두고 추진했던 F1 경주장 건설사업비와 천일염산업화 사업, 그리고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기본계획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국비지원 규모는 민선 3기인 2002년 5천282억원에서 6년만에 3배 가량으로 늘었다. 이중 신규사업은 24건으로 658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총 규모는 1조6천900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 주요 신규사업

광주	
사업명	반영액(억원)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	150
태양광·연료전지 산업 육성	20
광주 3순환도로 건설	5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80
중요문화유산벨트 아간경관	10
전남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센터	16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	50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구축	50
광안항 국제물류클러스터 조성	200
천일염 및 염생물 산업화 연구	10

신규사업으로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 건립과 장애인재활 전문병원 건립 등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사업(205억 원)과 태양광·연료전지 산업육성 및 아시아레이저 센터 운영 등 미래 신성장산업(40억원),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8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54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치센터 추가시설 비용(60억원)과 남광당 추가 건립(50억원)은 예산반영에 제외됐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전남지역 신규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R&D 센터 건립 16억원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 조성 50억원 등 모두 12건에 2천441억원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41억원 ▲천일염 산업화 구축 99억원 ▲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 40억원 ▲무안국제공항~순천 중동부권 연결도로 사업비 30억원 등 9건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와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제주 해저터널 건설(총사업비 18조원)을 위한 기본계획비 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개설 2008년 사업비 1천400억원 중 248억원 ▲대불국가산단 진입도 내년 사업비는 180억원 가운데 80억원만 반영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혁신도시 주민 지원대책 탄력

최인기 의원 발의 특별법 국회 통과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지역 주민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시도지사, 시장 또는 사업시



최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제정

책에 필요한 지원대책에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 및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 창출지원사업 등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에게 지역 주민 및 자녀의 고용추진 등도 대통령령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당직 개편 마무리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씨... 전국위원회 의장 이재창 의원

한나라당은 20일 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71) 서울대 명예교수를 영입하고 전 당대회 의장을 겸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에 3선의 이재창(경기도 파주) 의원, 인재영입위원회에 강창희 전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속 당직개편을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또 또 국제자문위원장에 경북지사를 지낸 이의근 대신대에 총장, 전략기획본부장에 재선의 김학송(경남 진해) 의원, 홍보기획본부장에 재선의 정병국(경기 양평·가평)

의원, 정보위원장에 초선의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을 각각 기용했다.

그 밖에 재정위원장 김철수 서울관악을 당협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 대외협력위원장 안홍준(경남 마산을) 의원, 국제위원장 박진(서울 중로) 의원이 중용됐다.

신설된 당원교육훈련특위 위원장에는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는 정종복(경북 경주) 의원, 제2사무부총장에는 송광호 충북도당위원장(원외)이 각각 임명됐다.

박계동 정치공직자지킴이위원장

과 정진섭 기획위원장, 임명진 윤리위원장, 박세환 윤리관, 장윤석 인권위원장, 이사철 법철학위원장, 허천재 재해대책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 등은 그대로 유임됐다.

공석 중인 선출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추석 연휴 직후 선임하기로 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번 당직개편과 관련, "능력과 적재적소, 당화합이라는 3가지 큰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고, 핵심 당직자는 "이후보와 박 전 대표 측 인사를 골고루 배려한 '화합형'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슨 좋은 일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명박 지지를 제고 총력전에 들어간 한나라당 이재우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크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첫 경선 이인제 1위

2위 조순형후보 227표 차 제쳐

민주당의 대선후보 첫 순회 경선인 인천 경선에서 이인제(사진)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1천983표 중 735표를 얻어 508표를 얻는데 그친 조순형 후보를 227표 차로 제쳤다. 김민석 후보는 422표로 3위를 차지했고 신국환 후보(251표)와 장 상 후보(67표)가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개막전 승리를 통해 초반 기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 오는 29일과 30일 연이어 실시되는 전북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 후보는 승리 직후 "민주당과 이인제 부활의 날갯짓이 시작했다. 태풍도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진정한 중도개혁 정권을 세워서 서민·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조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첫 경선에서 2위를 함으로써 '조순형 대세론'은 일단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 경선은 투표율이 9.1%에 그치는 등 참여도가 극히 낮아 조 후보가 우위를 발휘했고, 전체 58만 713명 선거인단 중 인천 선거인단의 비율은 3.8%에 불과해 추석연휴 직후에 실시되는 전북(29일), 강원·대구·경북(30일)을 거쳐야 경선판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가위

www.ktd.com

www.ktd.com

1. 100% 국내산 쌀 100% 국내산 콩 100% 국내산 팥 100% 국내산 견과류 100% 국내산 꿀 100% 국내산 감 100% 국내산 사과 100% 국내산 배 100% 국내산 감 100% 국내산 사과 100% 국내산 배 100% 국내산 감 100% 국내산 사과 100% 국내산 배

2. 100% 국내산 쌀 100% 국내산 콩 100% 국내산 팥 100% 국내산 견과류 100% 국내산 꿀 100% 국내산 감 100% 국내산 사과 100% 국내산 배 100% 국내산 감 100% 국내산 사과 100% 국내산 배

KTD 한국전통식품